

중학생의 금융이해력수준과 금융소비자교육요구도 연구

최 현 자(서울대학교 부교수) · 이 지 영(서울대학교 석사)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중학생들의 전반적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과 학생들의 교육요구가 큰 영역을 규명하여 향후 금융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은 총 41문항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25문항(1번 ~ 25번)과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특성, 금융관리현황 및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 등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1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1,650부 중 1,51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부실 기재된 자료 176부를 제외한 1,334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조사결과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평균점수는 40.11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교육 내용의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소득의 이해 영역의 평균점수가 44.66으로 가장 높았으며, 화폐관리의 이해영역의 평균점수는 35.70점으로 가장 낮았다. 저축과 투자의 이해 영역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44.15점, 지출과 부채의 이해 영역의 평균점수는 36.52점이었다. 소득의 이해 영역과 저축과 투자의 이해 영역의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화폐관리의 이해와 지출과 부채의 이해영역의 평균점수는 낮게 나타난 결과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이해력조사와도 같은 결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이 특히 화폐관리와 지출과 부채의 이해 영역에서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2.80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금융소비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드물었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소비자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 다양한 교육 방법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금융소비자교육의 하위영역 중 소득의 이해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저축과 투자의 이해영역, 화폐관리의 이해영역 그리고 지출과 부채의 이해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현행 금융소비자교육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4.2%에 불과했으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을 포함하면 33.27%였다. 또한 약 7.4%의 학생들만이 현재의 금융소비자교육이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육만족도가 높거나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답한 학생들은 교육요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금융이해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나 관심이 적은 상태에서 금융소비자교육의 만족도나 충분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 재무관련 현황 변수가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정금액의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학생들의 교육요구도가 높으며 부모와 돈관리와 관련된 대화를 자주 나누는 집단의 경우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금융이해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